



작은 시골마을에도 성탄이 왔다. 마을 어른 생일에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같이 밥을 먹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드님의 생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날이다. 어느날 병철씨가 자신의 세렉스 트럭을 몰고 가더니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실어왔다. 성탄절에 마당에서 떡메로 인절미를 치기로 선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다. 아직 성탄절까진 많은 날이 남았지만 병철씨는 벌써부터 성탄을 생각하고 있었다.

햇살 놀이방도 더는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았고, 그나마 있던 아이들도 여러 명 전학을 가버려 남은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데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따로 없다. 천상 성탄축하순서 준비는 아내 몫이 되었다. 아내 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러 날 몸과 마음이 분주했다. 순서가 대쪽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성탄 장식을 간단하게 하기로 했다. 성탄이 화려하게 들뜨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라도 확인하고 싶었고, 올해는 더더욱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많지 않은가. 따뜻한 마음을 모아 허전함을 덮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우리 얼굴 예뻐시키고!> 함께 모여 옛 물건을 만드는 시간이다. 미리 잘 추려놓았던 짚단을 들고 동네 어른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미리 파둔 새끼줄을 챙겨오는 분들도 있다. 짚신을 삼는 분도 있고, 알하는 소의 입을 가리는 소망을 짜는 분도 있다. 삼태기를 만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란 꾸러미를 만드는 모습도 보인다. 오래전에 사라진 물건들, 기억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옛 시간들. 그러나 함께 모여 옛 물건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 거꾸로 발걸음을 돌린듯 많은 기억들이 돌아온다. 지나가는 시간이 보이는 듯도 하다.

모인 사람 스스로가 심사위원이 되어 제일 잘 된 물건을 뽑고 순서를 상을 드린다. 삼, 꿩이, 호미, 호구, 낫 등 농기구가 상품이다. 성탄준비를 하던 아이들이 신기한 눈으로 구경하는 것은 물론이다.

어느새 날이 저물며 드디어 성탄축하행사. 서울서도 내려오고, 원주에서도 찾아오고, 외국인 근로자로 와있는 네팔 사람들도 찾아오고, 마을 사람들과 교우들, 작은 예배당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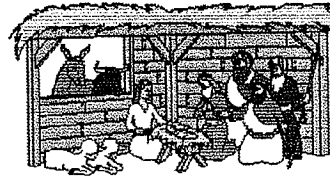
성탄이란 본래 먼 길을 걸어 만날 사람을 사랑으로 만나는 날. 그리움으로 단강을 찾은 사람들을 고맙게 만나 함께 성탄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박수와 웃음이 이어지는 순서와 순서들. 순서를 맡은 아이들마다 이날의 기억이 평생으로 남기를. 축하순서가 끝나갈 무렵 어김없이 나타난 산타! 아이들의 눈이 별빛처럼 빛난다.

촛불 하나씩을 밝히고 둥그렇게 둘러서서 마음으로 새기는 성탄의 의미와 사랑으로 나누는 성탄 인사. 성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간다. 이천년 전 첫 성탄의 밤도 이렇지 않았을까. 적어도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은. -한희철 단강감리교회 목사-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4권 성탄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12월 25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아빠의 위로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딸은 두 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고, 비록 상태는 훨씬 나아졌지만 아버지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은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고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다른 아닌 함께 다친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덧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 입학식 날, 누구보다 그 아버지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돌고 있었을 때 놀랍게도 보조다리를 의지하고 살아오던 아버지가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그때 비로서 엄마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야.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셨어야 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어야 우리가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기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물나는 밤엔 우며의 촛불을▶ 대가의 한마디

어느 젊은 여자가 자신의 피아노 솜씨에 대해 루빈스타인으로 부터 평을 무척 들어보고 싶었다.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즐라서 어렵게 루빈스타인 앞에서 연주한 후 기대에 부풀어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루빈스타인의 한마디...

"시집가요"

엄마가 딸에게

웃음도 가려서 하거라
남의 실수에 박장대소 하지 마라
그건 바보스런 웃음일 뿐이다
그러나 미소는
품위있는 웃음임을 잊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기예보를 믿는 것 만큼이라도
성경을 믿어라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에
우산을 준비하여도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 없는 사람이 많다

주 일 예 배

- 성 탄 절 -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Calvary"

다 갈 이

Gloria

참 회 의 기 도

Confession Pray

용 서 의 선 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122장

다 갈 이

Hymn

*성 시 교 독

57(성탄절)

Response Reading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Apostle's Creed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125장

다 갈 이

Hymn

기 도

Prayer

김성국 목사

<입교.세례식>

1.입교 2.세례 3.유아세례

<성 찬 식>

(김교섭, 김종건, 정덕수, 이광희.)

분 병 분병위원
분 잔 분잔위원

다 갈 이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18-25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우리 구주 나신 날'

김성국 목사

Sermon

찬 송

'115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갈 이

Hymn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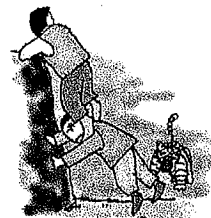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청년부:토 저녁 7시



친구를 위해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몸 버리시기 위해 오신
사랑의 성탄절입니다

1.교우소식

*입원:임혜자 집사. Middlemore Hospital Ward 4. 405호.

쾌유하심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2.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24일) "성탄축하의 밤"을 감사와 기쁨으로 가질 수 있었음에 교우 여러분께 감사
사를 드립니다

3.오늘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베풀습니다. 아울러 성찬식도 거행합니다

<입교> 정상현, 정상호

<세례> 유 순, 이선훈, 조한나, 조경원

<유아세례> 윤다미, 이원재, 전다현

◆ 1818년 어느 늦은 밤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시골 성당을 지키는 모울 신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간을 고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오르간이 덜컥 고장나 버린 것이다. 크리스마스날 성탄미사도 드려야 하고 연극 발표회도 해야 하는데 하나뿐인 오르간이 고장났으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골 마을이라 기술자를 따로 부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새로 구입할 형편도 아니었기에 그는 벌써 며칠째 오르간을 뜯어서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고칠 수가 없었다.

오르간도 없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까?

몹시 상심한 그는 일손을 멈추고 자리에 꿇어앉은 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창 동안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 밖을 내다보았는데, 깊은 밤 어둠 속으로 환한 달빛이 비추는 마을의 풍경이 무척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구나.'

그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에 감동받은 그 순간 그는 아름다운 시 한편을 떠올렸다. 그는 즉시 펜을 들어 떠오르는 글들을 써내려 갔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인 구루버 선생을 찾아가 시를 보여주며 작곡해 달라고 부탁했다.

"오르간이 고장났으니 선생님께서 이 시로 작곡해서 성탄미사 때 기타로 연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해 성탄절, 그 작은 성당에서는 모울 신부가 쓴 이 한편의 시에 곡을 붙인 음악이 기타로 연주되었다. 그 뒤 이 작은 성당의 어려움을 담은 이 노래는 널리 알려져 지금은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되었는데, 이 노래가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다.

